

설날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대표

신앙고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14장 ----- 다 같 이

1.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2.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뵈올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3.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못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4. 성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대표기도 ----- 가 족 중

성경봉독 ----- 누가복음 5:1-11(신약 95면) ----- 인 도 자

- 1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설 교 ----- 새로운 소망의 예수님 ----- 인 도 자

찬 송 ----- 찬524장 ----- 다 같 이

1.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2.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3.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후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

설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명절로, 가족과 함께 쉬며 새해의 소망을 점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자 목사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가정이 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겪은 '만선의 이적'을 다룹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그들은 밤새도록 애썼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몹시 낙심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따랐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차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기적의 현상이 된 것입니다.

2.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과 평소의 은혜

실망이 환희로 바뀐 비결은 베드로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며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기 전,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며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사명을 발견하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의 마릿수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고, 배와 그물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삶의 본질과 사명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록펠러 역시 시한부 판정이라는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부를 나누는 사명을 깨달았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타이틀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사명에 따라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을 기쁨과 소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지난날의 실패와 두려움, 아픔은 모두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립시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참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축복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 
가정예배문

